

연중 제 3 주일
구 라 주 일

기도서 333면 (A해)

제1독서: 이 사 8, 23b-9, 3

제2독서: 1고린 1, 10-13, 17

복 음: 마 태 4, 12-23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태 4, 23).

강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우 안 나 수녀

해마다 돌아오는 구라주일이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 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한 질병을 앓으면서 하느님을 극진히 섬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지원 마을도 나환우들이 모여 살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보다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본당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레지오회, 학생레지오회, 청년회, 성모회 모든 회합이 하나가 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 모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어려운 처지에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면서도 기도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가르쳐 주다가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슬픈 이야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우 한 분이 이런 말을 들려 주었습니다. “수녀님, 요즘에도 문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내에 나가면 문둥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미감아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고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 시대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든지 짝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둥이도 이제는 나환자로 미감아도 이제 제 2세로 바꾸어져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정상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2세로 불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심결에 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야 할려는지요?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그들이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은 “수녀님, 제가 병이 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병이 들으니 하느님을 알게 되고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회에서 살았으면 방탕한 생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1테살 5, 16~18)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모영보 수녀회·상지원)



젊은 죽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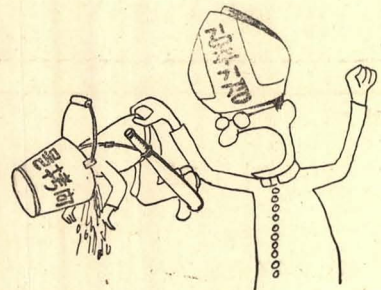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대학생에게만 가해진 고문과 죽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죽음의 그늘이 우리의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지금도 “불법 연행되어 면회는 커녕 소개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가 확인된 숫자만도 30여명에 이른다”(동아일보 1월 20일자 3면 여록 참조)고 한다.

이땅의 젊은이들은 의욕적 살려고 애쓴다. 사실 애쓴다는 표현은 너무나 약하다. 12년동안 배우며 밤잠을 설친 필사의 노력으로 대학입시의 관문을 뚫고서는, 그들의 눈에 비친 불의에 과감히 맞서 대학을 포기하고 옥고를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박군처럼 죽기도 하고, 또 대학을 쫓겨난 젊은이들이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권양처럼 성고문으로 갈기갈기 찢기우기도 한다.

뜻있는 젊은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교육은 본래 참 인간을 형성함으로써 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기에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성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래서 그들은 「교육 민주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해임이요 감봉이며, 정적이냐 경고처분이며 좌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주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는 <교육소식>지 (1월 15일자)에서 젊은 교사의 해임과 감봉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도 또 새로운 죽음이 있다. 교사에게 있어서 해임조치는 바로 그의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 곳에서 정의의 죽음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곧 불의에 대해서는 죽음의 예고요, 정의의 부활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하다. 박군의 억울한 죽음에 삼가 머리를 숙이며, 그 죽음이 부활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이기 를 빈다.

숲 정 이 산 채



인권유린 고문행위에
의로운 분노는
느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1986년 교구 중점 활동

1. 여산성지 축성식과 피정의 집 기공식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제경 전주교구 신자들의 협력으로 조성된 여산성지가 서울 신자들과 교구내 2천여 신자들이 참석하여 축성식을 가졌다. 이어서 천호성지까지 도보로 순례하며 교구의 숙원사업인 50주년기념 피정의 집 기공식을 4월 14일에 가졌다.

2. 10만인 성지순례와 특별대사 선포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유덕을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10만인 성지순례로 86년 9월부터 87년 10월까지 실시기로 계획하고 전국에 포스터를 배포, 교구를 선양하고 순례에 참가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대사를 선포했다.

제 1코스는 여산→천호, 제 2코스는 순정이→치명자산까지로 86년 12월 31일까지 순례인원 19,000여명에 1,50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3. 본당 사목회 개편

급변하는 사회 변화는 우리 교회 내에도 여러 모습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당 사도회를 사목회

로 개칭하고 4개 분과를 10개 분과로 세분하여 임원들의 임무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사무지침에 따른 가정공동체, 교구공동체를 다지기 위한 지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4. 지구단위 성체현양대회

본당단위의 성체 현시의 날 제정과 함께 지구단위에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단합된 공동체를 드러내 보이며 성체와 가정의 해를 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구별 성체현양대회를 개최(제 2지구·제 5지구)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5. 반 모임 정착과 반회장 교육 실시

가정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가정기도의 날 제정과 더불어 기초공동체를 다지기 위한 반모임을 위해 반모임 교재 「만남」지를 발간했고 5회에 걸쳐 반회장 연수회를 실시했다.

그 외 계층별 각종 교육과 제단체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교구설정 50주년을 기하여 교구 성지개발 사업과 더불어 각 본당별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성서교실 ⑦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마태 4:17).

예수의 천국관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 미래의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것이다. 복음도 두 가지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① 미래 지향적인 의미: 「주의 기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마태 6:10), 「행복하여라」(마태 5:3~9),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루가 18:1~8), 이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미래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의 예(例)는 많다(마태 8:11, 13:43, 19:28, 26:29).

② 천국은 현실적인 것: 나자렛 회당에서의 「예수 최초 설교」(루가 4:19~21),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표현(마태 12:28), 기타(루가 5:34, 7:20, 10:18~19, 23, 16:16).

③ 이 모순적인 것이 다음의 구절에서 해결된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말에 놀라지 말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요한 5:24~29).

여기서 27절까지는 천국이 이미 왔고, 28절부터는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다. 요한의 천국관은 이렇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양된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때, 선인은 생명의, 악인은 멸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고 신앙을 견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것이다.



소아과 전문의

김 소 아 과 의 원

김제군 요촌리 178-1(구, 후생의원)

병원 42-0667 자택 2-2455

김 종 범(루 가)
전 임 화(안철라)

(신간) 구약성서 주해집
(신간) 신약성서 주해집
월부 판매
가톨릭서적 판매

군산 양우당서적

군산시 문화동(군고 옆)

전화 62-9984
박 영 근(가브리엘)
백 연 옥(세시리아)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오거리 한일은행

진너편 2층

☎ 75-2203

교 구 소 식

1. 제11기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개강일-2월 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강당, 문의-교구청 교육국(☎0041)
2. M·B·W 현대 복음 선교 코스: 기간-2월 23일(월)~25일(수)
접수-2월 13일(금)까지 교육국(☎0041), 회비-25,000원
3. 1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30일 오후 11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참석대상-모든 교우들
4.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일시-1월 31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5. 주소 변경안내: 동산천주교회-전주시 동산동 708-21
새 성당 주소안내:
인후동 천주교회-전주시 인후동 1가 인후아파트 1단지 25동 206호
평화동 천주교회-전주시 평화동 1가 417-1번지
6. 이루갈다 순교미사: 1월 31일 오후 3시, 해성학교 순교탑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전주 쇼정이-치명자산(오후 2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25	일	김준호신부	1	일	김동준신부

※ 가정기도 독서: 시편 95, 8~11 마태오 5, 13~16

+ 한 젊은 대학생이 경찰의 야만적인 고문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고문 피살 민주연령 박종철 추도미사: 1월 26일(월) 저녁 7시30분
장소-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 잡 간!

☆ 꼭, 미사라도 한 대.

부모님-지금 살아계시거나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분들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분들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놀라움게 보여주시는 분들이다. 따라서 집안에 모시고 있거나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도 존경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각 본당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된다. 이번 기회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미사라도 꼭 봉헌 드리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나 아쉬움없이 자기의 소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들의 부족함을 세상에 남아 있는 내가 대신 채워줘야 한다. 아니 먼 훗날 나를 위해 미사라도 드려줄 자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내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위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죽음은 나에게도 피치못할 운명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거나 특별히 죽은 자 중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정말 이번 설날 명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꼭 미사를 봉헌하자.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크리스티나)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로 투자안내를 해드립니다.

- 상가 · 점포 · 토지 · 임야
- 각종 업소

**호남공인중개사
합 동 사 무 소**
오재철(안드레아)
☎ 0247-5604
(팔달로 롯데리아 앞)

요심이 (703) 김병오



유럽 ·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내

예수님을 잘 알고 성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과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리스도교 발생지이며 순교자의 고향인 로마와 가톨릭 문화를 꽃피운 서구의 땅을 찾아가 보는 것이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순례의 기회를 마련하여 귀하를 모시고자 합니다.

※ 희망자는 31일 10시까지 주민등록 초본 1통과 보증금 30만원을 지참하고 가톨릭센터 타로 오셔서 신청하십시오.

신청마감일: 87년 1월 31일
출발일: 87년 3월 20일경
여행국: 이스라엘과 유럽 6개국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이재후
수·사 2-7032 사목회장 노인석
아파트 75-6389

1. 신부님을 인사이드: 김용태 신부님께서는 교포 사목차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고, 보좌신부님께서는 벨기에로 유학차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은 이후성당에 서용복(토마스) 신부님께서, 본당에는 이재후(토마스)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3. 구정합동 위령미사: 빠짐없이 미사에물 봉헌합니다.
 4. 유아영세식: 31일 오후 3시,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5. 부녀회 월례회: 27일 어머니미사 후
 6. 이후 7구역장 임명: 최낙연 자매님
 7. 아파트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8. 금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봉헌-윤석연 부부, 신자기도-문명식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차주전례: 해설-전병주, 독서-봉헌-안재홍 부부, 신자기도-김환장 부부, 촛불봉헌-김진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27,910원 교무금: 756,500원
신축금: 709,000원 아파트 봉헌금: 239,060원
교무금: 128,000원 신축금: 520,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1.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삼회: 오늘 오후 2시
 3. 구라주일: 오늘 2차현금
 4. 구정합동 위령미사: 29일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 선영들을 위해 정성들여 미사 봉헌합니다
 5. 반회장 회의: 31일 오전 10시
 6. 영세하신 분들 첫 고백성사: 30일 저녁미사 전
 7. 청년회 창립총회: 2월 1일(다음주일) 저녁 8시
 8. 조축성: 2월 2일 저녁 7시, 제대용·가정용 조 준비
 9. 중고학생회 임원개편: 회장-정경균, 부회장-허미자
 10. 50주년 기념사업 및 분당헌금: 1만원-김경자, 누계-35,672,000원
 11. 축! 결혼: 25일 12시 신랑-유형근(베드로)군, 신부-이금자양
 12. 금주 성당주소: 월-다위의 탑·일치의 모후pr 토-갯벌·황금궁전pr
 13.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김수연 ③최창기 봉헌-장동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강민, 독서-①육경수 ②정진협 봉헌-윤옥근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7,370원 교무금: 656,650원
미수교무금: 172,70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집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1. 오늘 구라주일: 2차현금
 2.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학생미사 후
 3. 제대회 월례회: 매주 첫목요일로 바꿈
 4. 구정합동 위령미사: 미사에물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미사시간-오전11시
 5. 50주년 헌금: 김광열·방순례-1만원, 안동수-5천원
 6. 감사: 훈정이 은인-유순이·육준근(각 2구좌)
- 지난주 봉헌금: 138,590원 교무금: 14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덕장
사무실 "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2-2276

1. 꾸리아: 2월 1일 오후 3시
2.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3. 구라주일: 나환자를 위한 2차현금 있음
4. 구정합동 위령미사: 29일 오전 10시30분 선영들을 위하여 정성들여 미사에물을 봉헌합니다
5. 예비자교리: 2월 1일 공식미사 후에 있으니 인도바람 학생-31일 오후 6시
6. 제대회 신설: 회장-서인순, 부회장-강춘희 서기-박중숙, 회계-최인영, 축하-박진입니다
7. 중·고등부후원회 임원개편: 회장-박진주, 부회장-박미란, 서기-김정순, 회계-조주례
8. 금주전례: 해설-김은경, 독서-①민병석 ②김한기 봉헌-제11반

차주전례: 해설-최창림, 독서-①장현주 ②유용산 봉헌-제12반

□ 지난주 봉헌금: 본당-309,240원 평화동-141,950원
계-451,19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이덕근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1. 축! 환영: 이덕근 신부님 환영식 및 축하연-공식미사 후
 2. 재속 클라라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1시30분
 3.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4. 주일학교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황병순, 부회장-양명순, 총무-백금옥, 재무-신복자
 5. 베소라성서: 희망자는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6. 29일: 구정합동미사, 오전-5시30분, 저녁-7시
 7. 클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시간-목요일 저녁미사 후(성당 연습실)
 8.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공식미사후, 토요일(학생)-오후 4시 화요일(노인)-오후 2시, 수요일(직장)-저녁미사후
 9. 50주년헌금 신입 안하신 세대: 사무실에 신입바람
 10. 오늘 구라주일: 특별헌금 있을것입니다
 11. 차주전례: 첫 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최정식 ②최병래 8시 30분: 해설-최윤정, 독서-①손휘부 ②유용수 공식미사: 해설-이은경, 독서-①정우진 ②김홍기
- 지난주 봉헌금: 1,064,960원 교무금: 846,000원

(평화동)

사제관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사목회장 김광환

1. 축! 평화동 본당 승격: 금번 교구청의 정식 인가로 전주시 평화동에 「평화동 천주교회」로 본당이 승격되고, 박병준 신부님께서 본당신부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진실으로 환영하며 모든 형제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동 본당발전에 적극 협조합니다
2. 미사시간: 평일미사: 월-오전 6시, 화~토-오후 7시 주일미사: ①아침 첫미사-오전 6시 ②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③아동미사-오후 2시 ④저녁미사-오후 7시 토요일특전미사(중·고생미사)-토요일 오후 7시 ※ 각 반장님께서는 교우 가정을 방문하시어 알려주시고 타본당으로 나가는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본당에 교적을 둔 형제들은 속히 교적을 평화동 본당으로 옮기도록 지도바랍니다
3. 주의 봉헌축일: 2월 2일은 주의 봉헌축일입니다. 초를 준비하여 본당과 가정에 사용할 초를 봉헌합니다. 초는 사무실에서 판매함
4. 구정합동 위령미사: 미사시간-29일 오전 10시30분 각 가정의 선영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5. 본당사무실 이용: 본당사무실은 하층 미용실 옆 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6. 금주전례: 해설-함문권, 독서-①정형석 ②박형석 봉헌-10반장 가정 차주전례: 해설-박병환, 독서-①김화영 ②김와섭 봉헌-11반장 가정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중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1. 오늘은 50주년 헌금주일입니다
 2. 구정합동 위령미사: 29일 오전 10시30분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3. 어린이 영세식 및 첫영성체: 31일 영세식-2시, 첫영성체식-3시
 4. 축하합니다! 새 여성꾸르실리스타 장인숙, 박경순, 박서운
 5.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30일 저녁 11시
 6. 유아세례: 오늘 10시
 7. 모임: 오늘-자모회, 차주-꾸리아
- 지난주 봉헌금: 690,130원 교무금: 726,000원